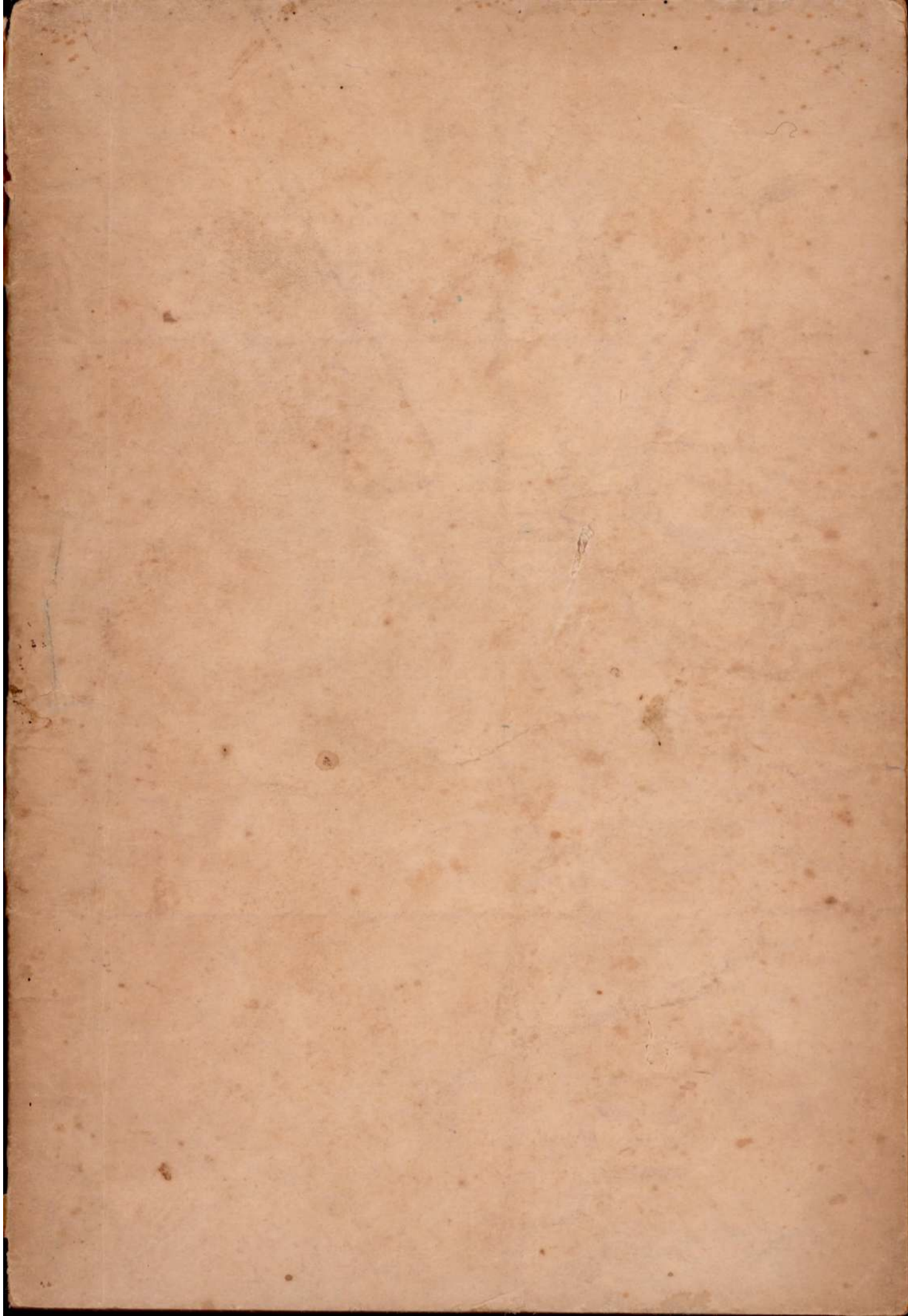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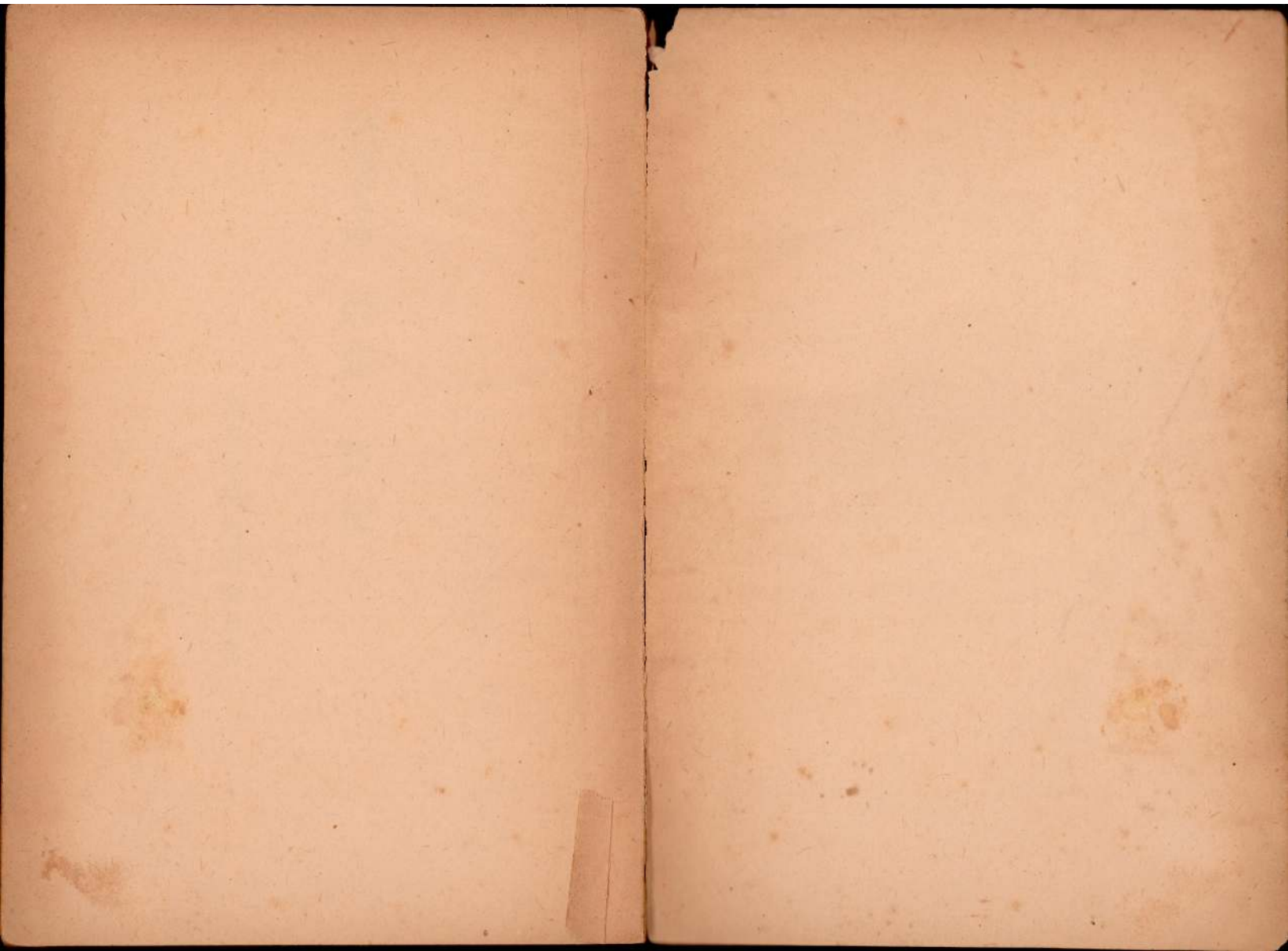
空軍文庫

詩集·蒼穹









空軍文庫 詩集 蒼穹

空軍本部政訓監室刊

發 刊 辭

宇宙는 沈黙을 싫어한다. 그래서 娑婆는 擾亂한 것이다. 이것은 逃避하려는 詩人의 靈魂은 過去에 많이 있었다.

그러나 現代는 이것을 拒否한다. 既往에 人類가 所有한 모든 것이 그러했 을지 모르나 現代의 生理는 全然 이것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있는 것(存 在)에 대한 調和를 위하여 貢獻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生活이었고 이 생 활이라는 것은 人間이 意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는 항상 時代에 살고 있으며 時代가 要請하는 곳으로 指向해야 한다.

이제 이 작은 詩集도 이것은 逆行하지 않는 것으로 將兵들 손에 配布된다. 卽 이 詩集을 통해서 우리는 來日을 위하여 마음의 安息과 洗鍊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祖國에 殉할 수 있는 마음의 餘裕를 蓄積하 자 는 것이다. 그것은 人間淨化도 되고 戰力培養도 되고 祖國愛도 될 수 있는 것 이다.

表紙書·趙 炳 應
編纂·李 相 魯

萬物이 蘇生한다는 봄이기에 이 작게 엮어진 詩集도 眞實로 모든 사람
에게 있어서 戰爭으로 萎縮된 情緒와 感情을 刺戟하여 새로운 것이 생
트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시 眞理로서의 主張이 아니고 現代가, 現在가 우리에게
妥協을 求하는 것의 應酬로서 있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이다.

四二八五年 三月 日

政訓監 金 基 完

蒼穹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 ★ 雜 芝 蕪

하늘은 우리의 고향

그리고 또 하늘은 우리의 서울

떠나서 그리움에 우리 향서 고개 물어 하늘을 바라본다.

젊은 흙위에 발을 딛었기에

우리 가고 싶은 마을의 殿堂을 하늘에 둔다.

푸르고 밝은 하늘에 젊은 구름이 끼어도

구름을 걷는 것만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뻐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

肉身만으로는 육된 세상을 어쩔 수가 없어서

새삼스리 마련한 은빛 영혼의 날개
그대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 않아도
서러울 리 없는 고향의 하늘에。

인정과 의리를 저버리면

삼과 주검은 한갓 유혈 뿐

제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삼과 주검을

제 마음대로 바쳐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린다。

열리는 하늘은 그대로 우리 영혼의 서울

아아 푸른 하늘빛 옷을 입은 병정들아

맑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正義라고 믿어라

하늘을 지키는 것이 사람길을 밝힌다고 믿어라。

“FOLLOW ME” ★ 趙 芝 露

○○ 飛行場에서

이른 봄 남쪽 어느 飛行場에는

아무히 물러선 連峰 우에 보라빛 구름이 어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종달새도 여가와 운다。

“FOLLOW ME” 푸른 大氣 속에

나주히 속삭이는 종달새는

아직도 하늘에 살고 있는

오를 하늘을 날으는 機上에 앉아

내 다시 마음의 날개를 펴 노니

손수건이라도 흔들고 싶다

하늘을 날면서 문득 사랑을 생각함은

소망이란 이루어지면 가없이 허전하기 때문

永遠의 訣別이란 얼마나 아름답을까

FOLLOW ME. 종말세는

저편 연둣빛에 내뻗었다.

들 에 서 * 집 요 션

— 일마 을들은 왜 하늘에 종말세가

저리 많이 우울?

봄의 고운 혼이 운다

봄의 고운 혼이 운다

눈 나리는 基地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은

하늘빛 것은 푸른 마음을 실고 간 날개

어느 별에 날아가 앓아 버렸느냐
어느 꽃핀 골짜기에 날아가 앓아 버렸느냐

구름에 묻혀 올라
바람에 묻혀 올라

오늘도 기다리는 基地에

코티아엔 언제 타이락이 되느냐 묻던

基地엔 타이락이 지친으로 되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날개

東方의 바람 무는 하늘가에 너울너울 날던

常綠의 절, 그늘에 추억은

잡내 나는 혼과란 잎들이

몸구름 속에 묻혀서

몸하늘 속에 묻혀서

몸의 고운 새로 되살아 온다

몸의 고운 새로 되살아 온다

해를 자모하는 사람들이
달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飛翔하려는 푸른 혼은 紙鷹

붓질된 날개로

땅에 自由를 푸르게 그려놓고

소년들이

일제히 올린 紙鷹의 하늘은
자모집 있는 하늘

햇빛 달빛 솟한 별빛이 부서진
영롱한 하늘빛 속에

별과 별 사이

찬란한 이름을 적어 띄어 보낸 紙鷹

紙鷹도 또 솟아

향내 나는 별을 쫓고 오라.

運命의 銃彈에 겨꾸러지는 저 運命의 무대기를

歷史의 風景 위에 즐빈한, 한치 憐憫마저 받지 못할

아아, 저 憎惡의 族屬들!

몸보리밭에 모여들듯 까마귀의 떼들이 쫓아댄다.

— 아니, 아니 너희들의 出血이 열마름 불을 망정 人間, 인간의 괴로는

認定치 못할, 너희들은 썩어 거름(肥)도 못될 咀呪의 肉身들이다.

그러나 默示錄에서가 아니라 오늘 二十世紀의 午後

불(火)의 審判에 겨꾸러지는 人類와 그 文化의 敵! 運命의 이 蠻賊들이여!



이기는 東部戰線 ○○地點.

砲彈이 날아온다. 제트機가 北하늘로 달린다. 아름다운 몸짓과 빛나는 速度와

그 音響!

우리는 지금도 前進하는 것이다.

제트트 몸은은 아무 한시간 전의 朴上士를 생각는다.

朴上士는 항상 말하는 것이었다.

— 大量屠戮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박연 사랑도 日月에의 愛着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個體를 否定하기 보다 저 곳은 피한 방울도 인정치 못할, 피리 불고 정치는 인간들. 아니, 아니 저 蠻賊들을 죽여야지요. 또 그 使賊者를...

그는 또 마지막으로

— 코리아와 불쌍한 코리아人民들을 위하여 荒涼한 이 땅에 와서 싸우시는 友軍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長久한 역사 속에 最大의 悲劇인 이 민족의 未曾有의 慘禍는 우리 스스로의 罪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라의 秘密協定』 —

— 쓰파린과 루즈벨트에게 있지요. 그러나 당신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新十字軍 — 오로지 우리들의 不絶한 前進과 勝利 萬歲!

이에 제센트 품슨은 대답하는 것이었다.

— 智慧와 自由를 위한 聖스러운 君의 주검! 나 도 어찌면 영영 돌아가지 못할 故國의 妻子에게 이린 遺書를 지니고 다니네

「아빠는 어디 갔느냐거든 民主主義의 守護와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共産軍과 싸우다 죽었다고 — 코리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追求하므로서 싸우는 것이며 建設하기 위하여 용감한 것이다. 君의 靈은 항상 우리들을 따르리니 民主連邦의 全体 人民과 우리의 용감무쌍한 安全防 衛軍과 함께 지 敗北의 무리들을 追擊 殲滅하여 새로운 前進과 勝利를 누탈 것이다.

爆

華 ★ 李 相 魯

故 朴範集·徐漢浩 軍神讚

그대들은

자유와 평화의 상징인

저 푸른 하늘의

守護神!

창공 높이서 외치시던

우리들 젊은이의 가슴

「대항」의 飛躍이다.

그대들은

오천년 슬기찬 힘의 表現!

삼천만의 號聲...

鬼獸

滅共의 雷雨를 뿌리시라.

명화의

자유와

민중 독립의 總突進의

先頭에 서신

그대들은

암흑의 세계를 거리 미쳐설

『대한』의 하늘의

라 오르는 불기둥

滅共 忠烈의 燦華시어라.

西部戰線에서 ★朴 寅 煥

차음이 다른 곳으로 移動한

이 작은 都市에

煙氣가 오른다

종소리가 들린다

希望의 來日이 오는가

悲慘한 來日이 오는가

아무도 確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煙氣나는 집에는

졸어진 家族이 모여 들었고

비나린 黃土길을 걸어

여러 聖職者는 옛날 敎區로 돌아왔다.

『神이여 우리의 未來를 約束하시오

悔恨과 不安에 의대인 우리에게 幸福을 주시오』

住民은 오직 이것만을 願한다.

軍隊는 北으로 北으로 갔다

土幕에서도 웃음이 들린다

미물기들이 和暢한

봄의 햇빛을 쬐인다.

信 號 彈 ☆ 朴 寅 煥

— 搜索隊長 K中尉는 信號彈을 운리며
敵兵 三十名과 함께 죽었다.

危機와 榮光을 告할 때

信號彈은 떠진다.

바람과 함께 살던 幸福도

떠나가 幼年의 時間도

무거운 複雜에서

더욱 單純으로 醇化하여 떠된다.

옛날 植民地의 아들로

점은 땅명어리를 밟고

그는 주검을 避해

太陽 없는 처마 끝을 걸었다.

어두운 밤이여

마지막 作別의 노래를

그는 무엇으로 表現하였는가

슬픈 人間의 類型을 벗어나

참다운 解放을

그는 무엇으로 信號하였는가.

『敵을 쓰타

侵略者 共産軍을 射擊해라

내 몸동아리가 밧걸 치럼 터지고

떨진 피로 化할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 주신 어머니

어머니 나를 中心으로 한 周邊에

機銃을 掃射하시오 敵은 나를 둘러쌌소』

生과 死의 不可分 外接線을 그으며 하늘에 구명을 품은 信號彈

그가 沈黙한 後 끊임없이 비가 내렸다.

單純에서 더욱 主觀으로

그는 나와 自由의 그늘에서 산다。

바다와 황소 ★ 卍 嶺

황소가 된다. 나도 쫓아 뛰어 간다. 물러가는 고삐를 잡을 수가 없다. 우울매 머리를 추켜 들고 크다랗게 운다. 바다가 파아랗게 보이면서 있다.

고삐를 놓아둔채 소를 끌기다가 나는 철축이랑이우는 어스름 잔기슭에 잡이들이 있었다. 이렇듯이 잠을 깨어 들러보았을 때는 황소는 물자구너 저만치서 풀을 먹고 있었다. 망울을 절렁대며 재로 푸른 풀잎들을 뜯어 먹고 있었다.

기슭을 내려 서서 골짜기로 내가 가자 황소는 출근술금 나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워, 워, 워, 달래봐도 들은채도 하지 않고, 풀밭을 밟어나선 절렁절렁

바다로 가는 길로 뛰어가는 것이었다. 물자구너 밟이 나면 바다는 있었다.

황소가 작고 편다. 나도 따따 작고 편다. 내가 빨터 뛰면 황소도 빨터 뛰고, 내가 좀 늦춰 뛰면 황소도 늦춰 편다. 황소와 나는 이제 호흡까지 맞는다. 고삐가 잡혀져도 잠고 싶지 않다. 절렁절렁 절렁절렁 소방울이 운다.

★

바다는 부풀면서 오고 있었다. 바다는 우썰대며 오고 있었다. 바다가 가까움자 황소가 소릴 친다. 정정정정 비급까지 놓는다. 꼬리를 추켜 든다. 나도 더욱 따라 편다. 허릿대를 추킨다. 밤이 작고 흐른다. 숨이 차차 달여 온다.

풀밭도 골짜기도 오양간도 버리고 황소는 날처럼 바다만이 그렇다. 고삐도 코뚜테도 편자도 없이 살면, 먼 조상들의 시절을 아득히도 잊은채 황소는 어미처럼 바닷물이 그렇다. 그리운 바닷물을 어미처럼 부른다. 코뚜테도 고삐도 있는 줄을 모

른다.

크다란 눈망울에 바다가 어려든다. 크다란 콧구멍에 바닷내가 스며온다. 크다란 두 눈에는 푸른 눈에는 글성글성 눈물이 어린지도 모른다. 우울메! 메에! 울면서 된다. 바다를 흘려 버려 소릴 치며 된다.

! 소야. 황소야. 아아 황소야. 뿔을 숙여 파듯때밀 받아보아라. 뿔이들어 바닷벌을 달려보아라. 나도 쫓아 뛰어갈게 달려 보아라. : 노을이 붉게 탄다.

바다가 울울을 손을 들고 온다.

어스름 바닷가를 소와 내가 뛰어간다.

바다와 바람결이 거칠면서 온다. : :

벗 에 개 ★ 박 와 領

여기 마을마다 송기종기 떠들석하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도 없이 어디로 가 버리고, 바람부는 밤, 하늘에 뿌리어졌던 벌들마저 쓸려가 버리고, 樹木들이 슬피 울고, 모든 禽獸와 魚鱉들이 눈물 짓고, 적은 昆蟲들마저 잎드려서 뿔하는 곳에, 그대만 혼자 휘젓기 남는다면, 그대는 어찌겠는가.

그 물이 고운 少女 하나 명글대는 아기 하나 만나 볼 수가 없고, 서로 따듯이 만나면 잡고 흔들 손길 하나 없어 너무도 혼자라서 러워질 수조차 없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그대는 어찌겠는가.

또 어찌면 저 푸른 산도 불도 다 없고, 짐승들 새들 적은 비례들 마저 다 길 곳
 없고 또 어찌면 그대와 人類들이 오오래 營營하며 戀戀히 愛着하던 저 都會와 村
 落과 온갖이 地上의 것이란 다 形蹟도 없이 제만 남아, 세금과 리, 무죄 조각 및
 짐볼 하나 없이 다 타고 제만 남아, 無漢하고 凄然한 그 가없는 磧漠, 차갑고 조
 각전 빈 달만 떠서 비취는 곳에, 요행이 홀로 그대만 남아 섰는다면, 그대는 어찌
 켜는가.

그러면 그대는 그대의 父母를, 그대의 어린것을 또는 어느 그대가 못견디게 사
 망하는 戀人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또는 하느님을 부르겠는가. 한 曲의 노래를,
 한 詩를 읊겠는가. 간 날도 오는 날도 생각할 길이 없어, 그대의 言語도 그대
 의 이름조차도 必要하지 않는, 아아 보이는 곳은 다 虛漠하기만 한 磧漠에서 서서,
 그대는 그때 입을 열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는가. 그대는 그때 입을 열어 무슨
 말을 지꺼리겠는가.

오오 그러나 나는 믿겠노라. : 저렇게 푸른 저 하늘이 보이는 한, 저렇게 따
 뚝한 저 햇별이 쪼이는 한, 저렇게 天真한 저 아가들이 뛰노는 한, 저렇게 눈이 맑
 은 저 少女들이 보이는 한, 저렇게 潑潑한 제가 와서 우짖는 한, 저렇게 고운 고
 운 들꽃이 피는 한, 저 또 착하고 이질은 마음 착한 수수한 사람들, 그들의 눈
 망울에 눈물물이 있는 한, 오오 우르러, 祈禱하면 받으시는 하느님이 제신 한, 나
 는 믿겠노라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는 곳 푸른 저 山과 들에 폭은히 안겨 사랑과 눈물들
 에 따 뜻이 있어 人間들은 오래 오래 살으리라고 : 간 날을 두고 두고 애기 하면
 서 오는 날을 오래 오래 기다리며 서, 푸리 빨갛 잎이 피듯, 오오 人類들은 茂盛하
 며 살으리라고.....

나의

조카딸 되는

그가 신고간 軍靴。

내 핏줄이

신고 가는 軍靴。

三八線을

넘는 軍靴。

아아 목숨보다

아름다운 깃발을

따라간다。

허나,

밀창바닥이 睡眠만큼 두터운 軍靴。

넘족하고

끔찍하고 못난 軍靴。

그 소박하고

우둔한 정다운은

손바닥이 누름한 사람과

손을 맞잡는 것 같았다。

고요한 하늘 ★ 朴 木 月

耳順이는

고요한 하늘이

그림다한다.

요지음은 우의가 우는

그런 하늘이라한다.

太古의 은근한 말씀이 스민

초록빛 은우한 비단 日傘에 :

그 고요한 하늘이

그림다한다.

고요한 하늘의

그 고요는

가만히 모아서 흘지 않는

눈동자 같이

뫼안과

꿈을

주리타한다.

아아 황홀하여

추물같은 하늘

宗教처럼

깊은 하늘

自由론 序

눈을 들어。

스스로 나직한 祝福에 귀 기울이는

그 神秘스런 하늘의

깊은 沈黙：

나도

고요한 하늘이

그렇다 생각는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 하늘이

또 오리라했다。

耳順이는

눈을 감고 슬픈 얼굴이었다。

京 春 街 道 ★ 金 潤 成

내고향 내 집을 찾아 왔어도

마음은 모다 허물어져 제만 남고

情은 사람들 모다 뿔뿔히 흩어져

내 고향을 더물음 곳이 없는

가도 가도 외로운 아아 京春街道、

어느 집 들담 옆

主人도 없이 혼자 피어

나를 맞아 웃는 살구꽃

가도 오도 못하코
砲彈 속에 마음 조려 살아 남은
땀 그 무뎠음만이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구나

渡江有情 ★ 金 潤 成

서울을 떠나오며

江을 건너, 어둠던

서울을 벗어나니

이렇게도 해가 밝아 보이니 보이다.

바람은 선선하고

해별은 알맞도록 따스하다.

아이들은 들뜬데 된

작은 꽃을 꺾고

老人들은 길가에 쉬어 긴 담뱃대를 고내 문다.

넙은 들환

여기 저기 우산을 퍼놓고

밥을 짓는 女人대들:

나도 푸른 잔디에 한참 누워

무엇인가 한가르히 생각하고 싶어:

南으로 뚫린 街道에

흐르는 行列 속에 나도 함께 흐르면

사람이 많아 나는 외롭지 않다.

혼자가 가는 길에 아나아저

쓸쓸한 줄도 모른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나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디서라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목이 메어 온다.

눈물이 흐른다.

位 置 ★ 朴 薰 山

눈(眼)만이 呼吸할 수 있는 이 世界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기 막힌 領土이기도 했읍니다.

내 두 눈이 바로 막혀진 그날부터

몸부림 치는 피로움은 짙어

해쳐도 해쳐도 가지밭 길이었습니다.

무시로 의로웠던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슴 하나 더 있었으면.

피어난 꽃 한 포기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 하리다만.

이제 설레어울 그 무엇을 물어뜯어

아름이 다시 그대에게 풍기지 않기를 願한다는 건

얼마나 피아픈 나의 사랑의 位置이었을지.

바라보는 얼굴 ★ 朴 靈 山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과아란

과아란

그리움이 서 있구나.

얼굴에서

얼굴 위로

지나가는 마련된

눈물의 옷볼을 물의.

산산히

꾸저덜어진

세월 안에

줄을 탄 눈썹이 말 없이 흐르고.

眞實은

남은 주름살과

흘러버린

핏방울이었고。

다시

靑春의 겨울 속을 더듬거며

서릿발 칼날이 찔어.

눈앞에

그냥

파아란

파아란

그리움이 서 있구나。

하늘로 가자 ★ 李 濟 堂

航空記念日記 脚興

푸른 들

푸른 山脈

푸른 하늘 위

번득이는 銀翼에 마음이 나른다

祖國의 榮光을 안고 젊음이 난다.

오늘도 원 누리에 흐르는 爆音은

벽산 내일의 希望의 노래.

노래 속에 이어가는 祖國이 빛난다.

山 峯고 들 맑고

하늘 맑아 뜨며는

어디랴! 거침 없이 알 수도 있고

어디랴! 敵陣을 문을 수도 있다.

아아 하늘이 오란다.

하늘로 가자.

꽃구름 영롱한 하늘 위로

祖國의 자랑을 실고 하늘로 가자

하늘은 永遠한 젊음의 故鄉.

검은 하늘, 푸른 별빛 쏟아지는 밤을
鵬翼에 반짝이는 탐프가 流星처럼 흐른다.

밤이고 낮이고 지키는 하늘 아래

아름답게 피어 오르는 겨레의 마음도

우렁찬 爆音에 맞추어 合唱을 한다.

푸른 들

푸른 山脈

푸른 하늘 위

오늘도

祖國의 하늘을 지키는 나래가 번득인다

祖國의 榮譽을 안고 銀翼 나래가 번득인다.

北方 戰線 ★ 李 潤 守

어느 補給部隊에게

北方千里戰線에 소리 없이 눈이 내린다

硝煙의聲 千里에 함박눈이 내린다.

결 아닌 결을 戰友와 더불어 표범처럼 눈속을 간다

결 아닌 결을 軍馬와 더불어 눈속을 간다.

어느 戰友가 흘러며 갔을가 피의 꽃송이 송이

손을 대면 아직도 그의 体温이 느껴질 것만 같다.

길 아닌 길 北方 山峽길에 흐른 핏색의 아름다움

피의 고운 색깔 속에서 커가는 噴怒를 안고 눈속을 잔다.

핏줄을 따라 고운 핏줄을 따라

가도 가도 山, 가도 가도 눈속을 오늘도 잔다.

敵의 死體를 앞에다 놓고 ★ 郎 三

푸른 歷史의 그늘 속에서

강물이 흘러가는 밤이 재도록

벌마져 못 보고 울며 쓸어진

無數한 生命이 가있지 않은가。

비웃하여 끝 맺을 無의 思惟가

너를 背反하고

싸늘한 體體가 되어 누웠으니 —

— 아득한 옛적부터 明滅하며
結晶된 精氣를 저버린

너의 罪果는

다시 묻지 않으련다。

— 너도 또한

祖國의 귀여운

아들 딸 —

나만 조용이 나리는 별 아래

귀우침을 탕 깨끗이 씻고

祖國의 疆土 위에 고이 잠플라。

鮮 血 * 露 三

하얀 눈속을 아도색인

丹誠의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채

靑山도 흐느껴 눈물 짓노니 —

오직 하나인 목숨을 바쳐

社稷의 어지러운 恥辱을 시켰으니

다지도 悔恨이 있을 리 없다。

가장 을바른 자랑이요

永遠한 빛을 거느리신 당신은
自由의 守護神
祖國의 防牌!

끓음으로하여 萬丈하는 鮮血을
民族의 受難 위에 피부어도 좋다.
正義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나니—。

春日點描 ☆ 金 基 完

☆ 이야기 기 의

봄은 插話。 참 핑계도 이야기도 많은 插話의 봄
寡婦가 故人을 생각하기 때문에 改嫁하고 홀애비가 새끼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편네를 얻는...

무슨 구석지고 무엇이 어떻다는...

어려운 倫理는 放擲하고 亂倫이 毅然히 멋대로 橫行할 수 있는...

그래도 봄은 刺戟이고

그래도 봄은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가졌다.

★ Schlofiabd

敎會堂 鐘樓는 어둡지 않다. 다만 들려오는 鐘소리는 무슨 자잡과 새로운 世界를
불러오는 듯이 졸립다. 그 소리는 이 가난한 마음의 자랑이었다. 그 소리는 이 천
한 사람들의 물도 없는 빛이었다. 그래도 봄은 鐘樓보다도 높은 곳에 있었다. 봄이
오고 鐘이 울리면 제법 구적이 맞는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었던 것이다.

★ 愛犬 卍

세멘트 봉당은 이가 빠졌다. 그래도 마스한 봄벌이 한가로이 들은 마루터엔 모
든 櫻과 欣求에 지치고 諦觀해 버렸다는 듯이 멍청하니 누어 있는 卍은 卍은 卍은
은갓것의 슬픔의 象徴인양 가없다.

게으름이 아니고 당얼한 생리의 기지개를 쓰고 앞발을 나란히 모은 우에 턱을
고인 그놈의 눈알은 이미 哀訴와 感情의 激熱한 表現을 잃어버렸다.

그냥 고약하고 킬한 것의 아둔한 아양의 눈치 뿐이다.

愛犬 卍 그놈에게는 봄도 즐겁지는 않다. 못마땅한 눈치와 상관은 일년 열두
달 계속하는 것이다.

너와 나 ★ 金 基 完

INGRAM 中佐 卍

프른 하늘도 이끼 앉은 반석과 같이 태고를 맛볼 수 있는 생소한 이 땅에서 너 고
향을 그리는 鄉愁의

파란 눈동자가 지긋이 감기우는 순간 그것만이 나와 뱃어진 沿革이었다.

너의 눈빛 짓구지게 정경하며

오래 간직했던 하소연도 하고 프고

모든 悔悟를 告白도 하고 싶어짐이

바로 너와 통해진 人情이었다.

나는 이제 온 누리가背叛을 거듭해도
 나는 온 누리를 연제든지 사랑 하리라
 波斯人이 잃어버린 祖國을
 의마뎃 소리로 불르 듯이

나도 너를 통하여 「善」을 불른 것이다.

이 땅이 墳墓 처럼 寂寥한 곳이 되어도

너는 내 마음과 같이 살아 있고

너의 의젓한 微笑를

寶物 처럼 간직하고 나는 살으리라

그것만이 너와 나의 모두 다였다.

註

이그람中佐는 美五空軍 公報處長。「너와 나」는 勝利日報에 掲載되었고 이 新聞은 그 의 충을 通하여 美國에 있는 그의 夫人에게 갔으며 ATTRACTION雜誌에 轉載되었다.

詩集 蒼穹 目錄

發刊辭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

FOLLOW ME

바다와 황소

뗏에 계

軍 靴

고요한 하늘

歷史의 風景에서

爆 華

西部戰線에서

金	趙	趙	朴	朴	朴	朴	朴	李	李	朴	朴	李	李	朴	朴	朴	朴	李	朴
基	芝	芝	斗	斗	斗	斗	斗	相	相	木	木	相	相	木	木	木	木	相	相
完	薰	薰	鎮	鎮	鎮	鎮	鎮	魯	魯	月	月	魯	魯	月	月	月	月	魯	魯
1	3	3	22	22	25	25	25	15	12	30	28	28	12	30	28	28	28	15	17

信 號 彈
하늘로 가자

北 方 戰 線

京 春 街 道

渡 江 有 情

位 置

바라보는 얼굴

敵의 屍體를 앞에다 놓고

鮮 血

들 에 서

紙 薦

春 日 點 描

너 와 나

朴 寅 煥 19

李 潤 守 42

李 潤 守 45

金 潤 成 33

金 潤 成 35

朴 薰 山 37

朴 薰 山 39

鄭 雲 三 47

鄭 雲 三 49

김 섭 7

김 섭 10

金 基 完 51

金 基 完 62

단기 4285년 5월 일인제
단기 4285년 5월 일발행

空軍文庫 詩集 蒼穹 · 非賣品

發 行 處 空 軍 本 部
政 訓 監 室
發 行 人 金 基 完
編 輯 人 崔 在 翼

韓 國 出 版 社
印 刷 工 場 印 刷

